

# “아기 탄생은 가족의 완성...최고의 추석 선물이죠”

셋째 아이 낳은 광주 허아름·진승찬씨 부부의 추석맞이

비혼·딩크족 등 개인 삶 중시하는 시대 의미있는 늦둥이 출산 사진동호회 적극 활동했던 아내 “지금은 아이 키우는게 취미” 아이가 주는 행복 정말 커...가족의 즐거움과 소중함 느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을 알게 되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올 한가위는 선물처럼 찾아온 막내딸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달 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예년병원에 허아름(여·38)씨와 진승찬(41)씨의 딸 진세연 양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연양은 이날 3.4kg의 건강 체중으로 우렁찬 울음과 함께 작은 발바닥으로 세상을 박차고 태어났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7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비혼과 딩크족(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이 늘어나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아이를 한명도 채 낳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혼 12년차 허씨와 진씨는 어느새 슬하에 아이 셋을 두고 있다.

허씨와 진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0년 만나 약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동시에 진세하(12)양을 얻었고 3년 뒤 진예준(9)군을 낳았다.

순천이 고향인 허씨는 결혼 직전까지 광양의 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 허씨의 취미는 사진찍기였다.

사진동호회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월급을 받으면 돈을 모아 값비싼 카메라도 구매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취미는 뒷전이 됐다. 허씨는 “아이 키우는게 취미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진씨는 포인트임플란트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사장의 배려와 격려가 있었기

에 순산까지 가능할 수 있었다는게 진씨의 말이다. 진씨는 “만약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한량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허씨부부는 양육과정에서 아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진씨는 “아이로부터 얻는 행복이 정말 크다. 아이가 나를 보며 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변하게 되는 부분이 참 많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되려 아이들에게 배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허씨는 “세하가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말 안예쁘게 해?”라고 물으면 화들짝 놀라 스스로를 돌아켜 보기도 한다고 했다.

또 가끔씩 “엄마 너무 힘들어보여서 내가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며 고사리 손으로 어깨를 토닥여 줄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정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허씨부부의 셋째를 낳아야겠다는 결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가족을 보며 확고해졌다.

남편 진씨는 3남매 중 막내다. 진씨는 누나 두명의 사랑을 오롯이 받으며 자랐다. 누나 모두 첫째와 둘째를 각별하게 챙겨 육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허씨와 진씨 부모님 모두 6-8남매로서 힘든일 기쁜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피가 섞인 형제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터였다.

그렇게 허씨부부는 자연스럽게 셋째를 떠올리게 됐다. 아이들이 동고동락하며 서로에게 힘이 돼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허아름·진승찬씨 부부와 자녀 2명이 갓 태어난 셋째(진세연 양)를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막내는 최고의 추석 선물”이라고 말했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허씨는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때부터 약 6개월간 엽산을 챙겨먹었고 1년동안은 필라테스를 통해 혈액순환 등 건강관리에 집중했다. 첫째와 둘째에게는 조심스레 “동생이 생기면 어떨것 같아?”라고 물었다. 다행히도 아이들 모두 허씨 부부 지인의 자식들도 친동생처럼 챙겨줄만큼 좋아해 동생 소식을 반겼다.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와는 달랐던 점도 있었다. 허씨는 “세하와 예준이를 낳을 때는 백일해(호흡기 질환) 주사라는 것도 없었는데 산모가 필수로 맞아야 한다고 해서 놀랐다”며 “다행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막내는 셋 중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씨부부의 목표는 아이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많지 않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예의있는 아이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허씨와 진씨는 입을 모아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다. 아이들이 가족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전남 추석 연휴 ‘구름 사이 보름달’

28일~10월 3일 맑은 날씨 이어져

민족대명절인 추석연휴 기간 내내 광주·전남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28일 오전부터 점차 맑은 날씨가 이어져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되겠다”고 26일 예보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27~28일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있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

가 오다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이 기간에는 아침 사이 안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당일인 29일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이지만 한가위 보름달 관측은 가능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 보름달은 광주·전남 지역 기준 29일 오후 6시 24분에 뜨고 30일 오전 7시 2분에 질 예정이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뜬다는 남중 시각은 광주 30일 새벽 00시 37

분으로 예상된다.

또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이 되는 시각은 29일 오후 6시 58분으로 전망되고 있다. 귀경길인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맑은 날이 계속될 예정이다.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큰 폭을 보이겠다. 28일부터 30일 아침최저기온은 14~22도, 낮최고기온은 25~29도에 분포하겠다.

다음달 1일부터 3일에는 낮 최고기온은 23~25도를 보여 평년과 비슷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최저기온은 11~18도를 보이고 바람도 강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사 로비 대가 돈 받은 ‘사전 브로커’ 첫 재판

혐의 일부 부인...법정공방 예고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사기범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전 브로커’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요구해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와 B(63)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가 속행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혔다.

A·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여자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내용이

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공여자 3명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향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경우 검찰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에 열린다.

또 검찰이 아직 이들 브로커 수수한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끝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인사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B씨에게 돈을 건넨 C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으로 영장심사는 연기됐다.

C씨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비상장 코인을 상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억 3000만원을 건네받고(유사수행위법), 이중 1억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형령)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대학생들 “귀향버스 타고 고향 가요”

전남대·조선대·순천대 등 저렴한 가격에 운행 ‘인기’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명절 귀향을 돕는 ‘귀향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귀향버스를 운행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췄던 대학가 명절 귀향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명절 귀향 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대는 광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학교 측과 총학생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시외버스는 27일 오후 6시 30분 전남대 보조

운동장에서 45인승 버스 12대가 일괄적으로 출발하며, 392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버스는 사전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대구, 부산, 전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최종목적지로 삼았다. 이용료는 지역에 따라 8000~1만원 사이다.

조선대도 올해 추석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귀향버스를 운영한다. 조선대 명절귀향버스는 27일 오후 1시 조선대 국제관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목적지는 서울, 여수, 순천, 광양으로 45인승 버스 4대가 운영된다. 조선대 재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약 150여명이 신청했다.

순천대는 올해 초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을 조사한 결과 명절귀향버스 운영이 뽑혀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명절

귀향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총학생회와 학생처를 통해 권역별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목적지로는 전라권에서 목포, 충청권에서 대전, 경남권에서 진주, 경북권에서 대구가 꼽혀 4개 지역을 선정했다.

그 외에도 최종목적지와 경우 가능한 전주, 하동, 사천, 창원을 운행구간에 포함했다. 순천대 명절귀향버스는 27일 오후 7시 순천대 통학버스 승강장에서 출발하며 최종목적지 별로 45인승 버스 1대씩 총 4대가 운영된다. 총 168명이 명절귀향버스를 신청했다.

이용료는 지역 상관없이 5000원이며 여행자보험 가입, 점심 도시락, 다과, 음료 등이 제공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조선대, 교육부 ‘램프 사업’ 예비 선정

5년간 매년 30억원 지원 받아 개교 77주년 맞아 기념식도

조선대가 26일 대학의 연구 혁신을 위한 ‘램프(LAMP) 사업’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다

‘램프 사업’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역량 강화를 돕는 신규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

는 ‘데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에서 서울대, 서강대 등 2곳, 비수도권에서 경상국립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국립부경대, 조선대 등 6곳이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5년간 매년 약 3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해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

는 한편, ‘램프 전임교수’ 등 연구인력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조선대는 이날 학교 해오름관에서 개교 77주년 기념식을 열고 세계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대학은 1946년 7만2000여명의 설립동지회원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그간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역사회에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며 “위기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살아남는 대학이 되려면 혁신은 상수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린 과감한 혁신을 통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누수 세대 보험가입 유도...피해 부풀려 보험금 타내

광주경찰청, 13명 불구속 송치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에 보험가입을 권유한 뒤 피해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가 발생한 7세대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을 유도해 가입 후 사고로 위장하고 등 보험금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들은 A씨와 공모한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수 세대-손해사정 보조인-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해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뒤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후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300~1200만원 상당을 타내면서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사 보조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B씨들이 받은 금품은 3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험가입금이 7000~1만원 정도의 저렴한 일배책을 악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